

통합돌봄 선도사업 삶의 만족도 ↑

전주시, 2020년 선도사업 추진 따른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 대상자 72.68% 상승했다 응답·1인당 의료비 월 115만원까지 절감 성과 나타나

전주시가 추진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의료비를 월 115만원까지 줄였다는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난 17일 전주시장실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0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자원인력의 서비스 전반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은퇴한 전문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의 경우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만족도를 이끌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건강·의료안정망 사업의 시작 이전인 지난해 7~8월과 이후인 9~10월 각각 60일간 전주시 완산구 통합돌봄 어르신 980명과 일반 어르신 1,79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인당 60일간 총 입원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은 약 200만원(월 100만원), 본인 부담은 약 30만원(월 15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본인 부담 1인당 평균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시장실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0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외래 총 진료비도 약 3만5,000원(월 1만7,500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의료비가 감소한 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강·의료안정망 구축사업이 한 몫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마을주치의 제도의 일환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복약지도,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펼쳐왔던 점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인당 의료비를 월 115만원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이 사업이 전국의 복지현

장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독자모형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2021년 전주시는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정책까지 포괄한 전주시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경찰서,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협력 위한 간담회

전주시와 경찰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1일과 18일 덕진·완산경찰서 관계자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력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 주말에도 열려요”

20일부터 재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주말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그간 코로나19로 주말에 개방되지 않았던 전주시청 내 책기둥도서관을 오는 20일부터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청 로비에 조성된 책기둥도서관은 시청 앞 노송광장 자연놀이터와 연계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면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으며 문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책기둥도서관에서는 주말을 활용해 ▲책놀이 ▲가족공연 ▲영화 상영 ▲도슨트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노송광장 자연놀이터에서 열린다. 어린이 가족 10팀이 참여해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7일부터는 책기둥도서관 내에서 동화나래연구소 동극단의 재미있는 인형극이 펼쳐진다. 27일 첫 시간에는 '늑대가 만난 동화 속 친구들'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책기둥도서관 내 작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가족영화들이 상영된다.

평일에는 '이타민준의 바다', '물숨' 등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또 책기둥도서관 공간과 전주이야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책기둥도서관의 주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프로그램은 책기둥도서관(063-230-1845)으로 사전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전주시청서 열려

시, 청·장년층 구직난·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4개 업체·구직자 40여명 참여

직장을 구하는 청·장년층과 인력을 찾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취직이 어려워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썬미래서비스(편의점 식품 제조업체) ▲썬푸드웨어(생동 만두제조 제조업체) ▲썬태송(생동 볶음밥 제조업체) ▲썬케이이티에스푸드(돈육 가공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4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했다. 이날 참여업체들은 면접을 통해 총 20명 이상을 채용기로 했다.

행사에 앞서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시간,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에서부터 서류심사,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맡아서 대행해주는 채용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집중적인 맞춤형 상담과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사 착공

전주시,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 총사업비 96억원 투입해 내년 6월 준공

전주시는 서신동 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공간이 될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00㎡(695평) 규모로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하1층에는 25m 5레인 수영장이 생기고, 지상1층에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선다.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도 구축된다.

시는 서신동에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이 들어서면 그간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이 일대 주민들의 체육 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설계를 마쳤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한 공원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정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체육센터 착공식은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체육센터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일정대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